



# 성능이 더

공화국에서 새해에 들어와 이전에 비해 성능이 훨씬 개선된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운행을 시작하여 거리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기차와 만난 송산궤도전차사업소 일군은 이번에 운행을 시작한 새형의 궤도전차들은 이미전에 만든 궤도전차들에 비해 기술적측면과 승객들의 편리성측면에서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궤도전차의 앞부분을 유리섬유강화수지로 성형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능이 개선된 견인전동기를 쓰는데 맞게 종전에 궤도전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하던 견인전동기대수를 줄이고 배치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제작원가를 낮추면서도 견인능력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또한 운전사들이 손접촉식화면현시장치를 통하여 속도와 전압, 전류의 세기, 견인전동기의 동작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궤도전차를 운전할수 있게 종전의 상사식조종계를 수자식조종계로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궤도전차운행의 안전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었으며 고장이 나도 손접촉식화면현시장치를 통하여 제때에 발견하고 퇴치할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의자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궤도전차의 내부를 시원스레 하고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인원을

# 좋은 새형의 궤도전차



태울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액정TV를 전차의 중간부분에 한대 더 설치하였으며 승객대의 높이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승객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새형의 궤도전차를 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가 보기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해서 정말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준

##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4)

# 세계력기강자 림은심

기관차체육단의 림은심수는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높은 기록을 세운 력기강자로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컵경기대회에 참가한 림은심수는 여자 71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12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8kg을 들어올림으로써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50kg의 성적으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컵경기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경기들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인 림정심선수처럼 세계적인 력기강자가 될 꿈을 안고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은 그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은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93kg을, 추켜올리기에서 113kg을 성공시켜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다같이 우수하였다.

이어 그는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05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5kg을 들어올려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40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역시 그에게 있어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잊을수 없는 대회였다.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

서 우수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의 경기는 수많은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06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1kg을 들어올려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37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그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녀자력기 69kg급경기에 나선 그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109kg과 137kg을 각각 성공시켜 2위를 한 선수보다 13kg 더 많은 종합 246kg의 성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였다.

림은심수는 이번까지 3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녀자 63kg급경기에 출전한 림은심수는 빠른 추기와 재치있는 련결동작으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시작부터 마감까지 책임적으로 경기를 운영해나

## 2월의 절기와 민속

2월의 절기들에는 림춘과 우수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림춘을 맞으며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그해의 소원이나 새봄을 맞이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벽장 같은데 붙이곤 했으며 읍파, 산겨자, 신감채 등으로 봄의 향취가 풍기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림춘시기 농사에 해당하는 풍습에서 특색있는것은 소와 관련한 의식이 많이 진행되었기였다.

지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소를 마을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나무소에 농쟁기를 매워 밭가는 시늉도 하였으며 부림소를 리용하여 얼마간의 밭을 갈기도 하였다.

우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우수, 정월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C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윗놀이, 바솔당기, 널뛰기, 연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올해의 림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 정월대보름

새해에 들어와 설명절다음에 맞게 되는 큰 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여러가지 의례행사를 하면서 의의있게 보냈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달맞이였다. 보름달은 매달 보름날 밤이면 볼수 있지만 한해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날의 달이 제일 크

게 보인다.

정월대보름날 저녁에는 마을사람들이 뒤산에 올라 정방같은 등근달이 솟아오르는것을 구경하였다.

이날 저녁이면 추위도 아랑곳없이 저마다 떠오르는 등근달을 구경하였는데 이때 달을 제일먼저 보는 사람에게 큰 복이 차례진다고 하였고 달의 모양과 빛깔을

여들과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날에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남가리대를 세우는 풍습도 있었다.

벼, 수수, 조, 기장, 피 등 곡식이삭을 매단 남가리대를 작은보름날에 세워서 보름가량 두었다가 2월 초 하루날에 거두었다.

어린이들은 이 남가리의 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였으며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새해에도 거기에 매단것과 같은 알찬 이삭과 실한 송이가 달려서 남가리대만큼 로적가리를 쌓을수 있게 풍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다.

이밖에 대보름날에 연피우기놀이, 바람개비놀이, 다리밟이놀이, 수레싸움놀이, 바솔당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사이에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지냈다.

정월대보름날에 아홉가지 마른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박(박나물), 오이, 버섯 등을 말린것과 호박오가리, 무우순, 배추 그리고 오이쪽지와 가지겉



정월대보름날에 약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약

## 사화

# 결의삼형제 (6)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이날따라 날씨는 몹시 스산하였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을 에이는듯이 뻤었다. 한손으로 섬을 흔들어보니 그안에서 《춘매》가 곱들거리었다.

《이 사람이, 꼭 내가 시킨대루만 말해야 하네.》

정희수는 누가 들을세라 섬주둥이에 입을 바짝 가져다대고 주절대기 시작했다.

《그놈이 재물을 사취하고 류씨와 좋아한다고 나와 자네가 좋아서 한결같이 나가면 최준이야 한입 가지고 두입을 당해내지 못할게 아닌가. 류씨가 없으면 자네를 정실로 들여알할수 있고 지금까지 류씨를 내쫓지 못하게 하던 최준이도 이번편에 아예 내보내고마세. 그러면 둘이서 보기 싫은것들을 다 내쫓고 잘살수 있네.》

정희수는 말을 끊고 대답을 기다렸으나 섬안에서는 꿈지럭거리기만 할뿐 기침소리지 않았다. 누가 몰래 보는것 같고 마음이 초조하여 가슴은 바작바작 타들었다.

《여보게 춘매, 내 말 좀 들으라구. 사또가 사실을 말하라고 하거든 내가 시킨대로 다 말하게. 그래서 오늘로 아주 류씨와 최준을 요정배간 말이야. 수레도 했겠다.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우리 정씨가문의 재

물과 세도를 자네가 독차지할게 아닌가. 왜 대답이 없나? 꼭 내가 시킨대로 말하지 응?..》

섬안에서는 말을 곧 하려는데 울지락울지락하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정희수는 춘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기에 이토록 대답이 없을까 하는 의심이 차츰 불일듯 하였다.

하늘을 쳐다보니 별새 한 낮이 기울었다. 조바심이 난 정희수는 섬을 흔들며 여겼다.

《속시원히 대답이라도 좀 하라구, 꼭 시킨대로 하지 응? 야- 이것이 말을 좀 하렴!》

섬안에서는 여전히 잠잠해있었다. 속이 타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정희수는 입으로 뜨거운 김을 토하며 미친듯이 섬을 잡아 흔들었다.

《아이구. 죽겠구나. 이년아! 어찌자구 말을 않느냐! 그놈이 내 재물을 사취하지 않았다거나 류씨와 관계가 없다고만 말하는 날네년이면 내 칼에 없어질줄 알아라!》

정희수는 벌떡 일어나서 발길로 섬을 마구 걷어쳤다. 섬안에 응크리고있는 사령은 열구리를 몇번 채이고 심음소리가 터져나오는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당장 뛰어나가 뺨을 후려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어찌는수가

준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명심했다가 형장에서 그대로 출길일을 생각하며 입을 꼭 다물었다.

지계바줄을 식식거리며 다 풀 정희수는 《이년, 어디 너 죽어봐라!》 하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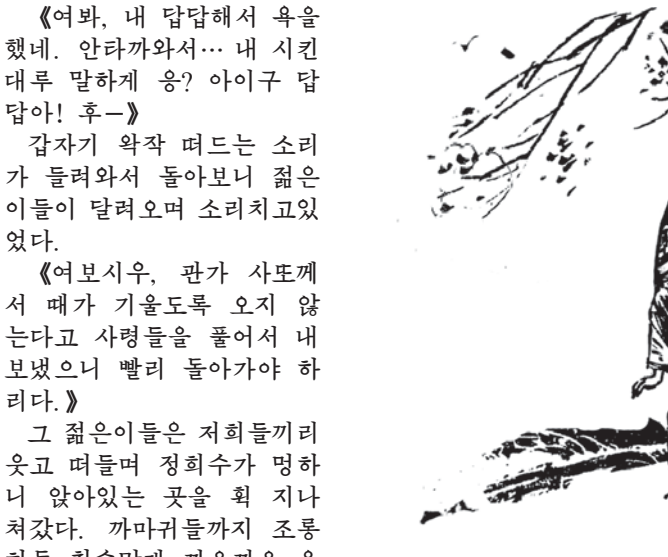
그바람에 섬속의 사령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사령은 그제야 속으로 (아이구,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이때 동헌쪽 큰길가에서 《저기 런곳에 있다!》 하고 소리는 사람들의 고향소리가 들려왔다.

관가에서 달려나온 사령들이었다.

정희수는 얼른 섬을 지게에 옮겨싣고 대충 바줄로 얹어냈다.

사령은 그제야 속으로 (아이구,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지부동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령은 몸이 달아연방 발버둥질을 하면서도 입만은 꼭 다물었다.

섬은 괴상한 짐승처럼 펠떡펠떡 날뛰었다.

《이년! 그대두 목숨은 아까운 모양이지. 말하겠어. 안하겠어? 내가 시킨대로 말하지? 예잇, 물속에 들어가 물귀신이 되어봐라!》

정희수는 지계를 내려놓고 발을 구르며 울러냈다.

섬속의 사령은 이자가 정말 제 런목속에 섬채 뿌려놓게되면 어찌나 무서운 소리치고싶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수나 박희

《회수의 후실도 사람이 아니시오. 벗을 바른길로 이끌다 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한말이 하는것은 아니외다만 어찌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사람을 잡으려 하오. 나는 비록 죽어도 무방하오만 마음 착하고 남에게 그토록 성실한 류씨를 어찌 무명을 씌워 내쫓으려든단 말이요. 하늘이 무섭지 않소? 당신도 사람이란것도 안해도 몰라보는 회수를 바로잡아주어야 할게 아니요. 세상을 속이고 범을 속이고 랑심을 속이고 당신 이 세상에 살것 같소. 끝까지 속이러다가는 천벌을 받으리다!》

섬안에서는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윽고 기운없이 터덜터덜 걸어 동헌안에 들어선 박희준은 섬지계를 내려놓았다.

그동안 흩어졌던 군중들이 두사람 다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모여들었다. 동헌안은 수백명 군중으로 꽉 들어찼다.

사또는 돌아패를 끌어오며 《섬안에 든 춘매를 꺼내놓아라.》 하고 분부했다.

그러자 사령 두사람이 섬을 묶은 바줄을 칼로 툽툽 끊어 제끼고 섬아귀리를 열어제쳤다.

섬아귀리에서는 춘매가 아니라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입이 쪽 찌개진 사령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군중들도 어인 일인가싶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젊은 사령은 섬안에서 몸을 굽고서 정신을 드러내며 눈을 깜빡거리더니 옷을 툽툽 털며 성큼 뛰어나왔다.

사령들은 정희수를 노려보며 빨리 가자고 몰아냈다. 이윽하여 옥색도포에 섬지계를 잔 정희수는 사령들의 제후를 받으며 울상을 하고 동헌안에 들어섰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무겁게 앉아있었다.

사또의 명으로 이번에는 박희준이가 그 섬지계를 지고 삼문밖으로 나갔다.

박희준은 목욕히 저자거리를 한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삼문앞에 이르러서야 섬안에 들어있을 《춘매》를 대상으로 입을 열었다.

《회수의 후실도 사람이 아니시오. 벗을 바른길로 이끌다 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한말이 하는것은 아니외다만 어찌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사람을 잡으려 하오. 나는 비록 죽어도 무방하오만 마음 착하고 남에게 그토록 성실한 류씨를 어찌 무명을 씌워 내쫓으려든단 말이요. 하늘이 무섭지 않소? 당신도 사람이란것도 안해도 몰라보는 회수를 바로잡아주어야 할게 아니요. 세상을 속이고 범을 속이고 랑심을 속이고 당신 이 세상에 살것 같소. 끝까지 속이러다가는 천벌을 받으리다!》

섬안에서는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윽고 기운없이 터덜터덜 걸어 동헌안에 들어선 박희준은 섬지계를 내려놓았다.

그동안 흩어졌던 군중들이 두사람 다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모여들었다. 동헌안은 수백명 군중으로 꽉 들어찼다.

사또는 돌아패를 끌어오며 《섬안에 든 춘매를 꺼내놓아라.》 하고 분부했다.

그러자 사령 두사람이 섬을 묶은 바줄을 칼로 툽툽 끊어 제끼고 섬아귀리를 열어제쳤다.

섬아귀리에서는 춘매가 아니라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입이 쪽 찌개진 사령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군중들도 어인 일인가싶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젊은 사령은 섬안에서 몸을 굽고서 정신을 드러내며 눈을 깜빡거리더니 옷을 툽툽 털며 성큼 뛰어나왔다.

## 역사문화

# 천문유산 - 혼천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독자적인 수단들을 제작하여 천체에 대한 관측을 진행하였다.

그리하면 천문유산가운데는 혼천의도 있다.

혼천의는 천체의 위치를 비롯한 천문학적값들을 측정하거나 혼천의로 관측한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계산수단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세기 재능있는 학자였던 리상혁은 자기의 수학론 문집 《산술관견》에서 다른 나라의 저서에 실린 서양학자의 계산방법을 실험로 들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것을 지적하고 계산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혼천의와 같은 우수한 천문관측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리용함으로써 천문학의 발전시키고 인류과학문화의 보물고기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천의들이 가지고있는 우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혼천의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을 리용하여 19가지의 천문학적값들을 측정할수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혼천의를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만능관측기구로 구조적으로 더욱 완성시켰을뿐만 아니라 혼천의로 관측한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계산수단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세기 재능있는 학자였던 리상혁은 자기의 수학론 문집 《산술관견》에서 다른 나라의 저서에 실린 서양학자의 계산방법을 실험로 들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것을 지적하고 계산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혼천의와 같은 우수한 천문관측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리용함으로써 천문학의 발전시키고 인류과학문화의 보물고기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 웃웃웃

이젠 가벼워졌을거야

옛날 시골에 사는 한 농부가 콩 두섬을 소잔등에 싣고 장마당으로 가고있었다.

황소가 험뻑거리면서 걷는것을 본 농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콩 두섬중에서 한섬을 덜어 제 잔등에 지고는 다시 소잔등에 올라가면서 소를 이끌었다.

《이젠 훨씬 가벼워졌을거야. 어서 가자!》